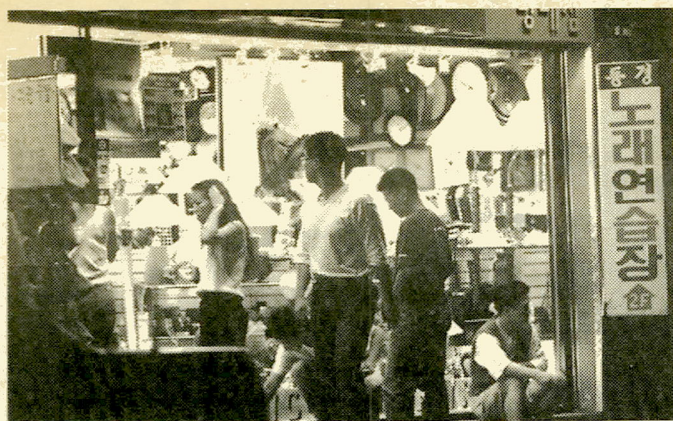




새벽 2시가 넘는 시간에도 방배동 카페골목에는 젊은이들이 가득하다.

자들은 저 차를 타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멋질까를 생각하죠. 만약 그 차의 주인이 카페안으로 들어온다면 파트너를 구하기 위해 앉아 있던 여자들이 그 남자에게 선택되길 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심리죠. 선택됐다면 그 여자는 일종의 프라이드를 느끼는 거고, 여기 자주 나오는 여자들은 경쟁심도 있어서 누가 새로운 패션을 입었다 하면 너도 나도 그것을 사입고 액세서리도 비슷한 것을 하죠.”

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남자는 고급차를 타고 온 ‘귀티’ 나는 남자다. 그런 기준으로 판단된 남자라면 돈이 없을 리 만무하고 하루밤 상대로는 최상이다. 운이 좋으면 고관대작 집 자체일 수도 있고 손해 볼 일은 아니다. 남자들도 예쁘고 집안 좋은 여자라면 계속 연락하길 원한다. 알아두면 좋을 것이라는 사회적 야망(?) 때문이다.

“여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쁘게 꾸며서 잘 팔려 나갈까를 고심하죠. 운 좋게 집안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에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일단 만난 남자에게 예쁘게 보이면 선물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이죠. 좀 노는 여자들이라면 옷, 신발, 보석 같은 것을 모두 남자에게 선물 받아요. 친구들끼리 모이면 하는 얘기가 보통 어젯밤 노는 애는 차가 벤츠였다. 어느집 자식이라는 등입니다. 남자의 인격이나 사고방식이 얘기거리로 등장하는 경우는 적대 없

죠. 가장 중요한 것이 차, 그 다음이 집안이고 생김새죠.”

조건 좋은 남자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물 좋은 곳’을 가야하기 때문에 평범한 대학생이나 젊은 여성들은 나이트클럽에 갈 비용을 위해 점심을 굶고 며칠 씩 용돈을 모은다. 4명이 가더라도 최소한 한사람당 5만원 이상은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 차 이름, 외모, 집안 순으로 선택

“여기 있는 여자들은 유부남을 좋아해요. 돈 많고 하고 싶은대로 다 해주고 그리고 유부남들은 성관계에 별로 집착을 안해요. 정리하는 데도 힘 안 들고.” 방배동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윤소영 씨(22, 가명, 대학생)의 말이다. 지금처럼 방학철이면 흔히 말하는 수입오렌지족들이 모습을 많이 드러내는데 이들도 여성들이 선호하는 부류다. 이들은 유부남과 같다.

압구정동이나 홍대 입구 등 젊은이들이 많이 출입하는 카페의 주인은 돈 많은 집안의 아들일 경우가 많다. 적당히 대학은 졸업했지만 직업은 없고, 돈 많은 부모들이 장사나 시켜볼 양으로 카페를 차려주는 것이다. 이들의 연령대는 보통 25에서 30 안쪽. 굳이 차를 끌고 거리를 배회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가게를 찾아든 여자들을 쉽게 유혹할 수 있다는 잊점을 가지고 있다. 간혹 카페 주인을 통해 여자들은 모델이나 탤런트의 길로

접어들기도 한다. 카페 주인이 여자일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전개된다. 십수년 연하의 남성들과도 자유롭게 성관계를 맺는다.

남성 중심의 문화에 도전이라도 하듯 일부 여성들은 자신의 차를 타고 나와 길거리의 남성들에게 타라고 권유하기도 한다. 드문 경우다.

### “많이 노는 여자들은 외국으로 시집가고...”

‘노는 애들’ 끼리는 서로의 정보에 대해 훤히 다. 누가 누구랑 잤더라, 재는 누구 누구하고 관계를 했더라는 식으로 서로에 대해 훤히 다. 수차례 임신중절을 했을 경우라면 장안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다. 더군다나 알만한 집 자녀라면 쾌락 후의 사태 수

습은 복잡해질 수 밖에 없다.

압구정동 카페에서 만난 최양이 그 부분을 설명해줬다. “많이 노는 여자들은 외국으로 시집가요. 외국사람들은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으니까. 알려진 애들치고 한국에서 결혼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요. 반면에 남자들은 몇년 신나게 놀다가도 졸업하고 직장 잡고 잘 살아요. 노는 것도 때가 있어서 한동안 놀다가 정신 차리고 정상적으로 잘 사는 것 같아요.”

여자들이 외국으로 쫓겨나 다시와 결혼하는 것에 비해 남자들은 좋은 집안에서 자란 조신한 처녀를 찾아 결혼한다고 한다. 비교적 소문 없이는 여자들은 돈 있고 많이 안 노는 남자를 대상으로 찾는다. 결국 결혼이라는 절차를 밟는데 있어서는 전통적인 배우자

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아무 생각 없다는 것이 답이에요. 그냥 만나서 좋으니까 놀고, 하고 싶으니까 잠자리도 같이 하고, 그러다 애 생기면 떼고... 그런 식이죠. 무슨 가치관이나 주관이 있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예요.” 도대체 그렇게 몸 상해가면서 피임하나 제대로 안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 논리라도 있을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최양의 답이다.

### “나도 돈만 있다면...”

몇몇 장소에서 일부 젊은이들이 단지 재미 있다는 이유만으로 행해지는 일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이들의 행태가 가져오는 파급이 너무 크다. 그 수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고, 노동을 하지 않으면 필요한 돈을 얻을 수 없는 대부분의 건전한 젊은이들에게 상대적 빈곤감을 심어줄 위험이 있다는데 심각성이 더해진다.

방배동 카페 골목에 있는 모 가족잡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김정선 씨(24, 가명)는 “나도 돈만 있으면 저렇게 한번 놀고 싶어요. 솔직히 부럽습니다”고 말한다. 사회적인 비난을 많이 받지 않는다고 되묻자 김 씨는 “누가 비난 합니까? 기성세대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비난을 할 수 있어요. 쓸 돈을 주고, 일 안하고 공부 안해도 살 수 있는 여유를 줬으니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비난 받아야 할 사람은 그 애들의 부모요”라고 답한다. <황금희 기자>

## 전단

# 젊은 여성들의 도발적인 성의식

## ‘선택 당하기’에 좀더 열심일 뿐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야타족’과 ‘나타족’의 행태가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여성의 성에 대해 폐쇄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던 우리사회는 자못 무거운 숙제를 안게 됐다.

보도에 따르면 이제 ‘앞서가는’ 젊은 세대에게는 한순간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가진 것에 대해 책임과 도덕을 운운하는 것은 촌스러운 일이 되었다. 이들은 섹스와 낙태로부터 자유롭다. 마음에 드는 남성이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접근해 “나 타도 되느냐?”고 묻는다. 물론 여기에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선택당하기만을 기다리던 과거 여성들의 모습은 이제 박물관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유물이 되고 있는 것이다.

성관계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들은 성적으로 ‘해방’

됐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나 여성들의 의식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종속적인 구도를 전혀 벗어나지 못한 표피적 변화에 불과하다고 보는 시각이 더 지배적이다. “여성들이 성이라는 굴레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해서 그것을 여성해방이라고 볼 수는 없다”

## 남녀종속구조 답습한 또다른 ‘여자의 굴레’ “여성은 성에 무지해야” 통념으로 피임도 안해

며 “젊은 층들이 성 상품화에 휩쓸리고 있을 뿐”이라고 보는 것이다.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이 복종과 순종, 인내에서 이제는 적극적이고 도발적인 것으로 그 외형이 바뀌었고 신세대들은 이를 적극 수용하는 층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들의 자유

또한 말초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들은 외부의 시각으로부터 자유로운 듯이 보이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 자신의 행실이 알려져 있는 이 땅에서는 결혼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외국으로 나가는 일례가 이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성에 관해서도 폐쇄적이긴 마찬가지다. 얼핏 여성들이 남자를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선택당하기’에 좀더 열심일 뿐이다. 보다 예쁘게, 보다 섹시하게, 보다 요염하게 자신을 치장하고 “나 이 정도쯤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노골적으로 자신의 몸값을 흥정하는 것이다.

이들이 피임을 하지 않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풀이된다. “여성은 성에 대해 무지해야 한다”는 통념의 결과물이다. 즉석에서 만나 즉석에서 가진 성관계였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라고들 하지만 그 내면에는 비록 한순간의 만남일지라도 떳떳하게 콘돔을 요구할 만큼 이 방면에 닳고 닳은 여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다는 심리가 깔려있는 것이다.

이들에게 자유로운 것이 있다면 모든 책임으로부터다. 자기 행동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려하지 않는다. 이런 사고방식은 당연히 낙태문제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낙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미래의 일이고 중요한 것은 현재이기 때문에 장애물이 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김명순 기자>